

언약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

강인한

(천안대학교 교수 / 기독교윤리학)

I.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선행연구개관과 연구방법

II. 계약으로서의 결혼

1. 계약에 대한 이해
2. 계약의 일반적인 특징

III. 언약으로서의 결혼

1. 언약에 대한 이해
2. 언약의 일반적인 특징
3. 계약과 언약의 대조적인 성격

IV. 결론

• ABSTRACT •

Now you and I are in a divorce revolution, and it appears no couple is exempt. Every marriage is in danger. The divorce rate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 and marriage as we've known it fast become obsolete. As a result of that, we are experiencing an epidemic of unnecessary divorces in which the children are the major losers. And the breakdown of the family is at the root of nearly every other social problem and patholog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store churches and society to an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marriage as covenant by applying timeless principle of God's Word. In order to do that, I will do a comparative study on the two concepts, contract and covenant.

The challenge I would like to give is for all every couple to examine their definition of marriage with the understanding that it must be more than a contract or even a commitment. It must be a covenant. A covenant is all about relationship, and it stays in effect until death. Without a covenant with your spouse, your marriage is without hope and also without God. By willingly taking covenant's "walk of death," you become one with God, and by his Spirit at work within you, you become one with your mate.

As I believe, nothing is more transforming than knowing what it means to be in a covenant relationship with God and with your mate. The understanding of marriage as a covenant has the potential to revolutionize your relationship with your spouse.

Therefore, We must reaffirm marriage as a viable institution and reestablish the traditional, biblical concept of marriage as a sacred and permanent covenant.

Keywords: Covenant, Marriage, Divorce.

주 제 어: 언약, 결혼, 이혼

I.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가정은 인간의 모체(母體)와 사회의 소우주(小宇宙)로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질서 위에 세워진 핵심적인 사회기관이다.¹⁾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사회분석가들은 이미 가정의 붕괴를 공공연하게 우려해왔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 역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쇠퇴하기 마련이다. 궁극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 문제와 병리현상의 뿌리에는 붕괴된 가정이 있다.²⁾

가정이 해체되고 붕괴되는 여러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이혼이다. 2005년 우리나라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4년의 이혼건수는 13만 9365건이며, 조이혼율(粗離婚率, Crude Divorce Rate)³⁾은 2.9건이다.⁴⁾ Fowers의 말대로, 지금 우리는 가히 이혼혁명(divorce revo-

1) Joe E. Trull, *Walking in the Wa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7), 175.

2) J. Kerby Anderson, *Moral Dilemmas* (Nashville: Word Publishing, 1998), 117.

3) 이혼에 관한 통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으며 외국과 비교가 가능한 통계방식이 '조이혼율'이다. '조이혼율(粗離婚率, Crude Divorce Rate)'이란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이혼건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年央人口), 즉 7월 1일치 전체 인구로 나뉘 천분율(%)로 표시하는 것이다.

4) 법원행정처는 2005년 4월19일 현재 우리나라 이혼율을 9.3%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기구 회원국 대부분과 우리나라 통계청이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은 사실혼관계가 많은 유럽과 혼인신고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조이혼율의 산정방식은 결혼과 무관한 아동층 인구까지 계산에 포함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2002년의 우리나라 조이혼율은 3.0건, 2003년에는 3.5건이었다.

법원행정처는 대신 호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특정 시점에서 결혼경력자의 총 혼인건수(2815만여 건)에 같은 시점 이혼경력자의 총 이혼건수(262만여 건)를 대비해 산정한 이혼율이 가장 정확하다고 밝혔다. 이 방식대로라면, 2004년 1월말 우리나라 이혼율은 9.3%로 11쌍 가운데 1쌍 꼴로 이혼한 셈이다.

lution)의 시대에 살고 있다.⁵⁾

그런데 앞서 인용한 통계청의 ‘2004년 혼인 및 이혼’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혼하는 사유로는 성격차이에 따른 갈등이 4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문제는 14.7%, 가족간 불화는 10.0%, 배우자 부정은 7.7%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정문제 전문가들은,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은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유들을 갖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준비 없는 결혼, 부부간의 의사소통 개선의 노력과 갈등대처 노력의 부족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실 결혼이 무엇인지, 왜 결혼을 하는지도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결혼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무지가 결혼의 파탄과 가정의 비극을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해도, 대부분 그것을 세속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는 이미 헤어지기 어려운 자아중심성(self-centeredness)에 깊이 물들어 있다. 이 자아중심성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존 스토틀트는 말한다.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원칙이다. 죄는 그 순서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놓는다. 자신을 제일 앞에 두고, 이웃을 그 다음에 두고(그것도 우리의 이익을 만족시켜줄 경우에만), 하나님은 저 멀리 뒤쪽 어디엔가 세워둔다.”고 그는 지적한다.⁶⁾

5)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1960년 이후 결혼한 부부의 수가 1/3로 줄어들었고, 대신 이혼한 부부의 수는 두 배 이상 늘어났다. 1994년은 미국역사상 최초로 가족해체의 주된 원인이 사망에서 이혼으로 대체된 해이다.¹⁾ 오늘날 미국에서는 새로운 결혼의 65%가 이혼으로 결말짓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Blaine Fowers, *Beyond the Myth of Marital Happiness*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13-14.

6) John Stott, *Christian Basics*, 김일우 역 『존 스토틀트의 신앙생활 가이드』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9), 31.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려 한다. 결혼은 이제 헌신에 근거하기보다는 오히려 편리성에 근거해 있다.⁷⁾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미 교회 내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위 이러한 계약적 사고방식(contract mentality)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 전문가들이나 상담자들이 이러한 풍토를 조장하는 듯한 느낌마저 지울 수 없다. 결혼연구가 Blaine Fowers은, “오히려 전문가들이 결혼에 관한 궁극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설명하기 보다는, 결혼에 대한 현대적인 관념들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한다.⁸⁾

그러다 보니, 이혼에 이르지 않아도 될 부부마저도 쉽사리 결혼내의 갈등을 달리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으로 해결하려 하게 된다. Paul Amato와 Alan Booth는 15년 동안 2천 쌍의 부부를 추적 연구하였는데, 흥미롭게도 이혼한 사람 가운데서 고도의 갈등을 경험한 부부는 1/3 이하였으며, 이혼한 사람의 30% 정도만 이혼 전 몇 달 동안 두 번이상의 심각한 싸움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대다수의 이혼이 낮은 갈등을 빚는 결혼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불필요한 이혼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라는 것이다.⁹⁾

이혼을 하게 되면 우선 부부가 헤어지면서 그 가정이 해체된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시설에 위탁되거나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양친 부모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보다 2-3배 많은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¹⁰⁾, 결혼 후 이혼할 확률이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7) Lowery, *Covenant Marriage*, 11.

8) Fowers, *Beyond the Myth of Marital Happiness*, 72.

9) Linda Waite and Maggie Gallagher, *The Case for Marriage*, (New York: Doubleday Publishers, 2000), 147-48.

10)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Survey on Child Health*, USA, 1988. 참조. Karl Zinsmeister, "Raising Hiroko." *American Enterprise* (March/April, 1990)

다.11) 따라서 이혼은 미래의 가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씨앗이 될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재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결혼을 여전히 유효한 제도로 재확인해야 하며, 신성하며 영구한 언약으로서의 전통적, 성경적 결혼개념을 재확립해야 한다.

본 논문은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통시적인 원리를 따라 결혼을 언약(covenant)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 내에서 Focus on the Family, Moody Bible Institute, Promise Keepers, Lifeway Christian Resources 등의 기관들이 언약결혼운동(The Covenant Marriage Movement)을 전국적 규모로 전개해가고 있는 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언약적 결혼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드는 데 이 논문이 일조하길 기대한다.

2. 선행연구개관과 연구방법

Kenneth Gangel(1977)은“Toward a Biblical Theology of marriage and Family”라는 제목으로 4가지 연속적인 글을 썼다. 그의 연구가 성경 구절의 조직적인 조사를 통해 다양한 가정생활의 이슈와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지만, 결혼과 가족에 대한 신학을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11) William Mattox, "Split Personality," *Policy Review*(Summer, 1995), 51. 다른 자료에서는, 한부모 아래 자라난 어린이는 양부모 아래서 성장한 자녀보다 평균적으로 보아 더 가난하게 되고, 건강상의 문제나 심리적인 장애를 더 갖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행동적 장애를 더 갖게 되며, 가족과 또래 사이의 관계가 빈약하며 성인이 될 때 결국 낮은 교육수준과 직업적 지위로 덜 안정된 결혼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Waite and Gallagher, *The Case for Marriage*, 125. 이혼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다서가지 특징을 연구한 Wallerstein은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은 학교 탈락률이 2배나 높으며, 십대임신율이 3배나 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Judith Wallerstein, *The Good Marriage* (New York: Warner Books, 1995), 125.

Stephen Post는 그의 책 *Sphere of Love: Toward a New Ethics of the Family*(1994)에서 “유사 가족 신학”(analogical-familial theology)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관계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구약 성경의 설명에 기초한 가족관계신학이다. 그는 신구약성경의 가족적인 용어들이 가족관계신학에 훌륭한 모델로서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Peter S. C. Pothan은 "Unpacking The family"에서 성경적인 가족 모델의 특징을 말하면서, 가족이란 친밀한 친족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백성에 속하는 공동체이며, 이것은 그 구성원간의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한다.¹²⁾

Jack O. Balswick & Judith K. Balswick은 *The Family*에서 현대가정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면서, 기독교적 결혼을 현대 사회의 모델로 제시하며 가족관계의 신학적 기초를 언약에 근거하여 강조하고 있다.¹³⁾

Ray Anderson(1982)은 그의 책 *On Being Human*에서 신학적 인간학을 구축하기 위해 언약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Anderson은 “인간성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는 신학적 진리를 따라, 언약개념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관계를 포함하는 여러 인간관계에 적용한다.

Ray Anderson과 Dennis Guernsey(1985)는 다른 책 *On Being Family*에서 언약개념을 하나의 가족 패러다임으로 개발한다. 여기서 저자들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부르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을 응답의 역사 속으로 부르시는 특별한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일방

12) Peter S. C. Pothan, "Unpacking The family," *Grove Ethical Study* (Nottingham: Grove Books Limited, 1992), 9.

13) Jack O. Balswick & Judith K. Balswick, *The Family* (Grand rapids: Baker Book, 1999)

적인 관계”로 설명한다.¹⁴⁾ 이들은 언약 개념을 가족에 적용하면서 언약의 무조건적인 특질을 강조한다.

Stuart McLean(1984)은 그의 논문 "The Language of Covenant and a Theology of the Family"에서, 언약이 결혼과 가족을 위한 하나의 은유로 효과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며, 언약의 여러 가지 관계적인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다.¹⁵⁾

Fred Lowery는 *Covenant Marriage*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언약결혼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언약결혼을 이상적인 결혼모델로 보고, 교회와 사회를 그러한 결혼을 회복하고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적 결혼예식과 거기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을 유대전통과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으로 풀어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Gary Chapman 역시 동일한 저서명으로 *Covenant Marriage*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을 구축하기 위해 언약적 결혼을 성경에 근거한 원리로 주장하면서, 갈등처리를 위한 원리, 성경적인 성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패턴 개발 등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언약을 결혼과 가정을 위한 기본적인 성경적 원리로 이해하고 주장하여 왔다.

본 논문은 이미 앞서 밝힌 연구목적을 위해, 자료들을 조사하여 계약

14) R. Anderson. & D. Guernsey, *On Being Family: Essays on a social theology of the family* (Grand Rapids: Eerdmans, 1985), 33.

15) 그가 제시하는 언약의 관계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사람들은 사회적이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 2)가족과 언약의 기본단위는 한 쌍으로 이뤄진 쌍방관계이다. 3)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은 조화만 아니라 갈등과 싸움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4)언약 안에 사는 사람은 서로 기꺼이 용서하고 용서받으려 한다. 5)언약 안에 사는 사람은 서로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6)언약 안에 사는 사람은 모범이 되는 법과 관계 내의 질서를 받아들일 것이다. 7)언약 안에 사는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예측할 때 일시적인 자각을 하게 될 것이다. Stuart McLean(1984)은 그의 논문 "The Language of Covenant and a Theology of the Family," *Consultation on a Theology of the Family*, Seminar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4, 4-32.

(contract)과 언약(covenant)의 개념을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나은 결혼의 모범과 원리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II. 계약으로서의 결혼

1. 계약에 대한 이해¹⁶⁾

우리 사회는 계약지향적인 사회이다. 이러한 계약적 정신은 결혼생활에까지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 그러면 계약적 정신(contract mentality)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약(contract)이란 기본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한 쪽이 어떤 것을 하면 다른 쪽이 뭔가를 하겠다는 조건을 자세히 기록하여 맺는 상호간의 합의이다. 예를 들어, 내가 매달 주택용자 원리금을 지불할 경우 은행은 내가 계속해서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한다. 만일 내가 그 계약을 파기하면 은행은 내가 사는 집을 압류하거나 소유할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계약 개념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의 계약 중의 일부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도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만일 아내가 저녁요리를 할 경우 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동의하면, 우리는 비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비록 법정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려는 도덕적 의무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비공식적인 계약은 그것을 맺는 사람들의 인격적 특성과 분량만큼만 유효한 것

16) Gary D. Chapman, *Covenant Marriage*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3), 6-8.

이다. 만일 어느 한 쪽이 그 협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 많은 관계가 뒤틀리거나 깨어지게 된다. 만약 그것이 법적 계약이라면, 그 피해자는 정당한 해결을 위해 소송을 할 수도 있다. 법적이지만 비공식적인 계약인 경우에도, 그 계약이 깨어졌을 때 상대방이 한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하기 위해 논쟁이나 고소를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언어적이거나 신체적인 폭력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계약은 서로의 성품과 무조건적 헌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불신과 물질적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속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계약은 깨어지기 위해 맺는 것이다(Contracts are made to be broken)”라는 말이 현대문화의 새로운 모토처럼 되어버렸다.¹⁷⁾

법적으로 볼 때, 결혼 역시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갖는 하나의 분명한 계약이다. 결혼에 대한 현대적 접근은 개인의 권리와 필요에 그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래서 “내가 이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 결혼이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를 묻게 된다. 현대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결혼은 같은 침대를 사용하는 두 지배자(sov^{er}ign) 사이에 맺어진 협정으로서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하나의 사회적 계약이다.¹⁸⁾ 따라서 법적인 결혼에서 한쪽 배우자가 그 계약을 따라 생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결정을 통해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요구하거나 혹은 결혼을 종결짓도록 정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한 사회는 결혼 관계를 규정하는 법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결혼은 하나의 계약이다. 그러나 우리는 법적 결혼과 언약적 결혼을 구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결혼은 계약 그 이상이다.

17) Lowery, *Covenant Marriage*, 81.

18) Lowery, *Covenant Marriage*, 82.

2. 계약의 일반적인 특징

계약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Gary Chapman이 설명하고 있는 계약의 일반적인 특징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¹⁹⁾

1) 계약은 대부분 제한적인 기간동안 적용된다.

우리가 차를 임대하려 할 때, 몇 년 동안 기간을 정해 계약에 서명한다. 만일 우리가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전세 들면, 전형적으로 임대 계약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 우리는 15-20년 동안 대출 계약을 체결한다. 대부분의 모든 법적 계약은 특수한 기간 동안에 이뤄진다. 만약 한쪽 당사자가 그 약속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계약은 통상 합의된 내용이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 상호간에 유익을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뤄진다. 그렇지만, 만일 환경이 변하면, 우리는 그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처벌을 감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비록 대부분의 결혼식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혹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헌신적인 진술들을 포함하지만, 많은 부부가 이러한 언약적인 약속들을 계약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말하는 바는, “우리는 이러한 관계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한에서 서로에게 헌신한다. 만일 2년 혹은 20년 안에 이 결혼이 서로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 때는 우리가 이 계약을 파기하고 처벌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약적 정신은 부부의 관계가 난관에 봉착하게 될 때에 그들로 하여금 쉽게 이혼을 결정하게 만들 수 있다.

19) Chapman, *Covenant Marriage*, 8-10.

2) 계약은 대부분 특수한 행동들을 취급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면 판매 후 서비스(A/S) 계약을 맺게 된다. 거기에는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그 회사는 일정 기간동안 특별한 방식으로 구입 장비를 서비스해줄 것을 명문화한다. 대부분의 서비스 계약은 어떤 예외조항과 더불어 “부품공급과 노동”을 포함할 것이다.

결혼 안에서 맺어진 대부분의 비공식적인 계약들 역시 특수한 행동들을 다룬다. “만일 오늘밤 내가 쇼핑간 사이에 당신이 아이를 봐주면, 내일 당신이 야구하는 동안에는 내가 애들을 돌볼게!” 이 합의에서 부부는 결혼관계 안에 있는 일반적인 역할들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순히 특수한 사건이나 활동들을 계약으로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비공식적인 합의는 가족생활의 세부항목들을 처리하는 긍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계약이 서로를 위한 관심과 사랑의 정신으로 만들어졌다면, 그러한 계약들은 실제로 언약적 결혼관계를 대체하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계약은 “만일~하면, 그 때 ~한다.”는 정신에 기초해 있다.

“만일 당신이 1년 계약에 서명하고 매월 서비스요금을 지불한다면, 그 때 우리는 ‘로밍 요금’ 없는 무료 휴대폰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언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계약 언어에 익숙하다. 이러한 언어는 추구하는 바를 얻기 위한 하나의 협상도구로써 자발성에 근거해 있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 배우자도 기꺼이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계약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부부 관계에서는 깊고 맹렬한 싸움과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계약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욕구에 의해 유발된다.

대부분 계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원하는 바가 있다. 이러한 욕구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길 원하는 동기이다. 판매원은 계약 추구자이다. 판매원은 “물건을 팔아 이윤을 남기기 위한” 욕구를 갖고 대화를 시작한다. 그들은 실제로 “그들이 파는 상품의 가치를 신뢰”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들은 그 상품이 “구매자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판매 계약을 통한 유익을 원하지 않았다면, 결코 판매원이 되길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혼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만일 내가, 나의 아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준다면 나도 그녀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자발성을 표현하면서 아내와 대화를 시작한다면, 나의 대화는 내가 원하는 뭔가에 의해 동기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5) 계약은 때로 무언중에 그리고 은연중에 이뤄진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때로 말없이 은연중에 계약적 관계를 형성하며 행동할 수도 있다. 비록 계약이 말로 표현된 적은 결코 없지만 부부 당사자는 서로의 합의사항을 알고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이미 상대방에 대한 전이해(前理解)에 근거한 것이겠지만, 엄연한 계약적 결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계약은 중요하다. 대부분의 결혼한 부부는 여러 해 동안 서로 수많은 계약을 만들어왔다. 사실, 그러한 계약들은 모든 부부가 경험하는 생활의 일부이다. 이러한 계약의 정신은 부부가 각기 다른 저들의 능력과 관심을 서로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결혼이 이처럼 존중받는 하나의 법적 계약이고, 또 결혼생활 안에 있는

비공식적인 계약들이 우리의 상호 유익을 위해 서로의 기술들을 사용하도록 효과 있게 도와주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결혼을 단지 하나의 계약 혹은 일련의 계약으로만 바라볼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럴 경우, 우리는 전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버리게 된다. 비록 계약이 우리의 언약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되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하나의 계약 그 이상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혼을 궁극적으로 하나의 언약으로 보기 때문이다.

III. 언약으로서의 결혼

1. 언약에 대한 이해

1) 언약의 개념

왜 언약결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언약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독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성경적 용어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언약 및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 언약 사이의 분명한 연결성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해석학적 원리 가운데서 특히 언약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언약신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 맺기 위하여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셨다. 인간이 지은 죄는 관계의 상실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는 관계의 회복이며, 성화는 회복된 관계의 성장이고, 영광과 종말은 관계의 종국적 완성이다.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 부부로서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경영자와 근로자의 관계,

이 모든 관계 모티프(motif)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라는 핵심사상은 개혁주의 신학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해석학적 중대성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특성은 언약신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²⁰⁾ 따라서 결혼 역시 이러한 ‘언약적 정신(covenant mentality)’ 위에서 맺어져야 한다.

그러면 언약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Webster's Dictionary*에 보면, 언약을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뭔가를 행하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것은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합의”로 설명하고 있다.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서만 300번 이상 사용되고 있는데²¹⁾, 언약(ברית, *beriyth*)이란 기본적으로 ‘주권적으로 집행되는 피로 맺는 결속(bond in blood)’이요 ‘생사와 관계된 맹약(bond of life and death)’을 의미한다. 성경적인 언약 개념의 핵심에 있는 것은 결코 위반할 수 없는 결속(a bond inviolable)이라는 것이다. 성경이 문맥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개념은 ‘결속(bond)’ 혹은 ‘관계(relationship)’이다. 따라서 언약적 헌신의 결과는 사람과 ‘연관된’, 사람과 ‘함께’ 혹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²²⁾

더군다나 ‘피로 맺는 결속(bond-in-blood)’이나 ‘생사와 관계된 맹약(bond of life and death)’이라는 표현들은 언약적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헌신의 근본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구약성경에서 “언약을 맺다”라고 번역되는 구절은 문자적으로는 “언약을 쪼개다(to cut covenant)”로 읽힌다. 이러한 용례가 성경의 언약역사에서 한 시대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율법서와 선지서, 성문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

20) 송영재, "언약신학과 조직신학", <http://chaemoksa.com.ne.kr/writings/writings.htm>

21) Lowery, *Covenant Marriage*, 42.

22) O. Palmer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4-7.

다.²³⁾

2) 성경에 나타난 언약

① 노아와 맺은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다.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맨 처음 사용된 곳은 창세기 6장 18절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인간의 패괴함 때문에 지상의 모든 생명을 멸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계속하여 노아가 지은 방주를 통해 동물세계를 보존할 것을 지시하셨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는 결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언약적 상징으로써 무지개를 보여주셨다(창 9:8-17). 이러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주도권을 잡으셨다. 그 언약은 노아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여 방주를 지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홍수로부터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의 동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필요한 것이었다. 노아가 방주를 자발적으로 짓는 것은 그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진해서 수용하였음을 나타낸다.

②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노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은

23)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 8.

그렇지 못했다.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뒤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아브람이라는 사람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다(창 12:1-3).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약속 이상의 것이었다.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절대적 순종과 전적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행하기로 선택했다. 그의 나이 75세에 65세의 아내 사라와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했다. 10년이 지난 뒤에도 노부부에게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다(창 15:4-18).

여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요소가 있다. 그것은 소위 “쪼개는(cutting)” 언약체결방식이다. 언약체결 과정과 그 개념이 “쪼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 주변 여러 문화에서도 나타나지만, 성경에서 “언약을 쪼개는(cutting a covenant)” 개념이 처음 나타나는 곳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이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동물들을 쪼개어 양쪽으로 마주 대하여 놓았다.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쪼개어진 동물의 사체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 쪼개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언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다.²⁴⁾ 언약체결 의식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이 ‘죽음의 행진(walk of death)’이다. 일반적인 언약체결과정은 두 언약 당사자가 죽어 쪼개어진 사체를 서로의 뒤에 두고 그 사이에 선다. 그리고는 영원을 상징하는 8자 모양을 만들며 사체를 돌아 걷고 다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선다. 이 같은 ‘죽음의 행진’을 함으로써 언약당사자들은 서로의 언약을 맹세한다.²⁵⁾

24) 이 구절과 관련해서, Kay Arthur는 쪼갠 고기 조각 사이로 지나가는 타는 횃불과 연기 나는 풀무를 언약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었다고 해석한다. 쪼갠 고기 조각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을 예시한다는 것이다. Kay Arthur, *Our Covenant God*(Colorado Springs: Waterbook Press, 1999), 34.

③ 모세와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계속하여 언약을 맺으셨다(출 19:3-6). 소위 모세 언약 혹은 간단히 율법이라 불리는 것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십계명에서 잘 요약된 도덕법(the moral law), 일상생활을 다스리는 시민법(the civil law), 관계를 다루는 의식법(the ceremonial law)이 그것이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계에 대한 수용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언약 자체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제공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제정하실 때까지 율법은 유지되었다. 모세언약의 보증은 ‘쉽’을 의미하는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의 목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쉽’을 발견하게 될 때 새로운 언약 안에서 성취되어질 것이다.

④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서는 다윗과 더불어 그의 언약을 재확인하셨다(삼하 7:12-29). 시편 89편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묘사하고 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구히 소멸하지 않을 왕국에 대한 약속이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나셨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위는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하여 계속되어질 것이다.

⑤ 선지자들을 통한 언약

선지자들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음을 자주 상

25) Lowery, *Covenant Marriage*, 126.

기시켜주었다(렘 31장, 겔 37장, 호2장 등).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역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대적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이들도 없지 않다.²⁶⁾

⑥ 옛 언약과 새 언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testament라는 말은 covenant와 상호교호적인 단어이므로, 구약과 신약을 the Old Covenant와 the New Covenant로 표현하는 것이 무방하다. 그리스도 초림 수백 년 전에 이미 구약은 신약, 즉 새로운 언약의 도래를 예고하였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고(렘 31:31), 이어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 31:33)는 약속을 하셨다. 구약은 속죄를 위해 율법주의와 동물의 피를 요구하는 희생제사 제도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 의식과 모형은 새로운 언약, 곧 하나님의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지적하는 그림자였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옛 언약을 성취하고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메시아로 계시하고 있다(마 26:28, 눅 22:20). 그리스도 자신이 최후의 만찬석에서 자신이 흘리는 피가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다(눅 22:20, 고전 11:25). 모든 메시아적 약속의 성취자로서 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적 원리의 본질을 성취하신다. 따라서 예수님은 언약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²⁷⁾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이러한 언약개념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고후 3:6, 갈 3:15, 히 7:22, 8:6, 13:20 등). 이런 점에서 볼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26) Lowery, *Covenant Marriage*, 51-52.

27) *The Christ of the Covenants*, 272-273.

인류와 맺으신 피의 언약 이야기이다. 이러한 새로운 언약의 결과로, 우리는 용서, 구원, 영생을 값없는 선물로 얻게 된다.

⑦ 인간과 인간 간의 언약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는 언약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삼상 18:1-3에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는다. 룻기 1:16-17에 보면, 룻이 나오미와 언약을 맺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 역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맺어지는 하나의 언약으로 볼 수 있음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에 크게 놀랄 필요는 없다. 잠언의 저자가 그의 아들에게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번덕스런 아내에 대한 경고를 할 때에, 그는 결혼이 하나의 성스러운 언약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낸다(잠 2:16-17).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하나의 언약적 결혼관계로 묘사하신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이스라엘을 간음한 아내로 묘사하고 있다. “내가…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겔 16:8)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자신의 불쾌함을 표현하시며,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궤사를 행하도다.”(말 2:14, 16).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결혼을 전 생애적인 언약관계로 분명하게 보셨다(마 19:4-9).

2. 언약의 일반적인 특징

계약과 마찬가지로, 언약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맺어지는

하나의 합의이지만, 그 합의의 성격은 매우 다르다. Gary Chapman이 설명하고 있는 언약 관계의 일반적인 특징 다섯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²⁸⁾

1) 언약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동기에서 시작된다.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에서(삼상 18:2-4), 요나단이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겹옷과 군복, 칼, 활, 띠까지 주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동기는 다윗을 향한 자신의 사랑에서 우러난 것이었지, 다윗이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주도록 조종하기 위한 이기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나오미와 룯의 언약도 마찬가지이다(룯 1:16-17). 나오미는 자신이 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룯에게 분명하게 말했지만, 룯은 그것과 상관없이 언약을 맺었다. 나오미를 향한 룯의 헌신 역시 나오미의 행복을 위해 룯 스스로 가진 관심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물론 다윗과 나오미가 언약에 헌신하는 정도 역시 요나단과 룯의 헌신도와 동일하게 강한 것이지만, 그들이 언약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 언약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욕구에서 생성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조작하거나 뭔가를 얻기 위한 욕구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언약관계의 특징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더 잘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쥐셨다(창 6:9). 그러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 맺은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노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맺어진 것이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또 다른 언약을 맺으셨다(창 9:11-13). 이 언약에서 노아에게 기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선언하시고, 그 언약의

28) Chapman, *Covenant Marriage*, 13-24.

표정으로 무지개를 주셨다. 우리가 무지개의 표정을 볼 때 우리는 그러한 고대의 언약을 상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언약결혼에서 각각의 배우자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 만일 배우자 모두가 그 언약을 지키면, 둘 다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동기와 태도는 이기적인 욕구충족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이 결혼할 때 이러한 태도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가졌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이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우선적으로 발견하려는 태도는 부부가 맺는 관계의 성격을 크게 바꾸어놓을 것이 분명하다.

2) 언약은 서로 무조건적인 약속을 맺는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은 그들의 미래 행동을 예상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에서,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구원받을 방주를 짓도록 요구받았다. 이론적으로 볼 때, 만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약은 다른 한편에서의 상호적인 반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편에서 보면 아무런 조건이 없다. 노아의 반응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였음을 나타내었다.

나오미에 대한 룯의 헌신이 그토록 강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조건적인 진술이 아니었다. 룯은 함께 고향으로 가서 상황이 좋게 흘러가면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겠다는 식의 조건을 달지 않았다. 룯이 나오미와 맺은 언약은 무조건적인 것이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는 조건적인 용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 5-6절이 그러하다.²⁹⁾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의 순종에 따라 조건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계명을 불순종할 때에도 자신의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그의 언약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다가가셨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남은 자들(the remnant)은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유익을 경험한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은 무조건적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 언약의 열매는 이스라엘이 가까이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와 맺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유익을 누리 기 위하여 우리 편에서의 반응을 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반응에 근거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 베푸신 헌신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 사도요한이 말한 대로, 우리를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반응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요일 1:9).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 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약속의 유익을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로 반응해야 한다. 결혼관계에서의 원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언약적 결혼은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특징지어진다. 전통적인 결혼서약에서, 우리가 서로 맺는 언약은 무조건적인 용어들로 표현되

29)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

어져 있다. 그것은 언약적인 결혼 언어이지 계약적인 결혼 언어가 아니다. 슬프게도, 많은 부부가 언약관계를 서약하고서도 배우자의 행동에 따라 조건대로 반응하는 계약결혼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언약은 불변적인 사랑에 기초해 있다.

‘불변적인 사랑(steadfast love)’이라는 구절은 구약성경의 אָהַב(헤세드)와 신약성경 ἀγάπη(아가페)를 가장 잘 번역한 것이다. 불변적인 사랑의 특징은 언약결혼의 핵심에 있다. 때때로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으로 번역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자비(lovingkindness)’(애 3:22, NASB)로 번역되어진다.³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가 내일도 오늘과 동일할 것임을 알고 위안을 얻는다.

신약성경은 그러한 사랑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고전 13:4-8).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과,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판매원과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언약은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를 지닌 사람들과만 맺는다.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보라(삼상 18:1, 3). 요나단은 관계를 시작하기 위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다. 그들의 언약은 이미 형성된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노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 것이었고, 그 사랑에 대한 노아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성경은 말하길,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했다(창 6:9).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노아와 언약을 맺

30) NIV 성경은 ‘위대한 사랑(great love)’으로 번역하고 있다.

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한 사랑의 관계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언약을 맺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심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우리의 삶을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헌신할 수 있다. 언약결혼에서도 그것은 동일하다.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주례자 앞에 서서 언약을 맺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덧붙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맺는 언약은 서로를 위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언약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 받고 있으며 또 서로 사랑한다는 생각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롭게 서로를 위해 우리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 우리는 결혼을 통하여 이러한 사랑의 태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불변적인 사랑은 하나의 선택이다. 그것이 바울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엡 5:25), 동시에 아내들에게 그들의 남편을 사랑하라고 도전하는(딤후 2:4) 이유이다. 뭔가 명령하고,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 대한 태도를 선택한다. 언약적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불변적인 사랑의 태도이다. 사실, 자기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갖기로 선택하는 것, 배우자를 긍정적 언어로 생각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성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배우자의 불변적 사랑보다 더 결혼한 사람의 품성을 높여주는 것은 없다. 우리가 배우자로부터 사랑 받고 있으며, 우리를 향한 그들의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깊은 내적 확신은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성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4) 언약은 헌신을 영원한 것으로 본다.

우리의 결혼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관계를 그대로 반영한다.³¹⁾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동행하지 않고 자기 자아에 대하여 죽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혼은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룻과 나오미의 언약을 보아도(룻 1:16-17),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보아도(창 9:12, 15-16), 그 속에는 동일하게 영원한 언약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는 때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창 17:8)은 1948년 이스라엘의 귀환과 독립을 통해 가시적으로 성취됨을 보여주기도 했다. 인간 언약의 영구성은 또한 다윗과 맺은 요나단의 언약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그 언약은 다윗이 젊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훨씬 전에 맺어진 것이다. 수년이 지나서 요나단이 죽은 후에,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삼하 9:1)”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로서 므비보셋이라는 장애인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게 되면서, 다윗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남은 생애동안 보살펴주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요나단의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것이었다. 다윗은 그자신의 신실함을 요나단의 아들에게 보이길 원했다. 왜냐하면 그는 요나단과 언약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약은 헌신을 영원한 것으로 본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혹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결혼예식의 통상적인 진술들은 실제로 언약적 진술들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언약은 영원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후 5년 동안만 혹은 결혼을 종결할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때까지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31) Lowery, *Covenant Marriage*, 13.

은 영원에 대한 헌신이다.

5) 언약은 대면과 용서를 요구한다.

구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 즉 노아(창9장), 아브라함(창17장), 모세(출 19장), 여호수아(수 24장), 다윗(삼하 7장),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맺은 언약을 추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빈번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헌신을 따라 사는데 실패하였음을 알게 된다. 구약을 표면적으로만 읽어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주 실패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게 된다. 그렇게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를 무시하셨는가? 역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면 (confrontation)하셨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용서(forgiveness)할 준비를 유지하고 계셨다. 이처럼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항상 대면과 용서에 대한 자발성이었다. 이러한 원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시편 89편 30-37절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다.³²⁾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값없는 용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를 대비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는 불가능할 것이다.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맺은 언약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 실패한다. 그 같은 실패 때문에 우리의 언약이 파기

32)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꺾으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꺾이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꺾이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 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 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30-37절).

될 필요는 결코 없다. 그러나, 그것은 대면과 용서를 요구한다. 대면과 용서라는 이 두 가지 반응은 언약적 결혼에서 본질적인 것이다. 대면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을 바로잡고 회복시키기 위해, 상대방이 알아야만 하는 현실이나 잘못을 지적해주는 행동이다. 그리고 용서는 그 징벌을 제거하고, 사랑하며 성장하는 관계를 지속하려는 자발성을 의미한다.

언약결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족관계는 율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은혜로운 분위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계약에 기초한 결혼은 율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지만, 언약에 근거한 결혼은 은혜와 용서의 분위기를 창출한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용서하려는 자발성을 가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면, 용서는 경험되어질 수 없으며 관계 역시 회복되어지지 못할 것이다. 언약결혼은 우리의 배우자가 실수할 때 기꺼이 용서하려는 마음가짐을 특징으로 한다. 용서는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약속으로서 결혼언약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용서는 내가 더 이상 상대방의 실패에 대하여 따지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용서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용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언약결혼에 헌신한 사람은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 기꺼이 용서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언약의 갱신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통하여 볼 수 있다(수 1:16-18, 24:14-18, 창 35:1-5 등). 모든 결혼에는 실수가 있다. 비록 우리 각자가 맺은 언약들이 진지하게 맺어졌지만, 우리는 때로 이 같은 언약적 헌신을 따라 사는데 실패한다. 좋은 결혼은 어떤 실패로 인해 파괴되는 것이 아

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실패를 기꺼이 다루려 하지 않거나 우리의 언약을 갱신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구약의 아굽이 벤엘로 돌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한 것처럼, 우리의 결혼언약도 때마다 갱신할 필요가 있다.

3. 계약과 언약의 대조적인 성격

신학자 Paul E. Palmer는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계약은 사람에 대한 봉사를 보증하는 것이고, 언약은 인격을 보증하는 것이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 물질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 깨어질 수 있지만, 언약은 비록 그것을 어겨 마음에 상처를 입고 개인적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깨어질 수 없다...계약은 국가를 보증인으로 삼고 사람들이 그 증인이 되지만, 언약은 하나님을 보증인 삼아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신다.³³⁾

계약과 언약 사이의 차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은 불신으로 인해 맺는 합의이지만, 언약은 신뢰로 인해 맺는 합의이다. 계약은 제한된 의무에 근거해 있지만, 언약은 무제한적인 책임에 근거해 있다. 계약은 속성상 조건적이지만, 언약은 무조건적이다. 계약은 자아성장에 초점이 있지만, 언약은 자아제공에 그 초점이 있다. 계약은 결과에 근거하지만, 언약은 관계에 기초해 있다. 즉 계약은 엄격하게 합의에 근거해 비인격적인 관계를 갖지만, 언약은 그와 달리 관계에 근거해 있다. 계약은 “이 결혼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묻지만, 언약은 “이 결혼을 통해 내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를 묻는다. 다시 말해, 계약적인 결혼은 그 초점이 받는 데 있지만, 언약적인 결혼은 주는 데 있다. 계약은

33) Paul E. Palmer, "Christian Marriage: Contract or Covenant?" *Theological Studies*, 33, no. 4(December 1972), 639

편리성에 근거해 있지만, 언약은 헌신에 근거해 있다. 계약은 “해야만 하는” 헌신이지만, 언약은 “하고 싶어 하는” 헌신이다. 계약은 특별한 기간을 위한 것이지만, 언약은 영원을 위한 것이다.

이로 볼 때, 결혼은 법적인 결합으로 종이 위에 기록하는 계약 이상으로서 두 당사자의 마음에 새겨지는 영원한 언약적 헌신이다. 계약은 이름의 서명을 요구하지만, 언약은 마음의 결속을 요구한다. 언약은 한 생명이 다른 생명 속에 융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별개인 두 사람이 하나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융합된다고 하는 것은 신비이며,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IV. 결 론

이혼의 증가로 인해 수많은 결혼이 깨어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예비지식이나 학습도 없이, 그들이 하는 서약의 의미조차도 모른 채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더군다나 배우자를 섬기기 위한 희생적 사랑의 정신으로 무장하기는커녕 자신을 섬기며 사랑해주기를 기대하는 이기적 태도로 결혼에 이른다.

결혼은 모든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다.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사람의 무죄시대에 제도화된 것으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평생 동안 유지되는 신비한 연합이며 배타적인 언약이다.³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반영하도록 의도하신 언약적 관계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때라야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제대로

34) 강인한 『기독교윤리 다이제스트』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2), 22. Lowery, *Covenant Marriage*, 6.

성취된다.³⁵⁾ 다시 말해, 결혼의 바탕에 계약적 정신이 아닌 언약적 정신이 견고하게 놓여 있어야 진정한 결혼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결혼이 계약이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사실 매일 매일의 가정생활에서 수행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비공식적인 계약적 합의를 따라 이뤄진다. 계약에 근거한 관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호적인 만족과 공평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동시에 계약에만 근거해 있는 부부나 가족 관계는 언약적 사랑이 갖는 놀라운 차원을 저버릴 가능성이 있다.³⁶⁾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strangers)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한다(엡 2:11-18). 계명과 규정으로 구성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의 언약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고 둘이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이다.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통하는 길뿐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며, 사람이 다른 사람과 진정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언약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적 원리이다.

어떻게 서로 매우 다르며, 불완전하고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함께 끝까지 머물 수 있겠는가? 결혼을 단순히 하나의 법적 계약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규정을 어기면 깨어지는 계약과 달리, 언약은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언약적 관계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와의 언약적 관계없이 우리의 결혼 역시 “세상에

35) David Atkinson and David Brown, "The Future of the family" in *Stepping Stones*, edited by Christina Baxter (Hodder and Stoughton, London, 1987), pp. 164-166.

36) Balswick & Balswick, *The Family*, 25.

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결혼이 될 것이다. 언약적 결혼 속에 깊은 헌신과 강력한 사랑과 인내하는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이 제 3의 언약 당사자로 개입하여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약결혼은 부부간에 맺는 언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의 주도자와 증인으로 참여하시는 이중적 언약이다. 그러므로 언약결혼은 듀엣(duet)이 아니라 트리오(trio)이다.

이처럼 결혼을 언약으로 이해하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이 그 관계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계속 갱신되면서 다음 세대에까지 확대된 것처럼³⁷⁾, 결혼을 통해 함께 맺은 부부의 언약도 해를 거듭할수록 갱신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 처음 결혼할 때 그리고 결혼 이후에 서로 맺은 언약적 헌신을 상기하며 서로에게 새로운 언약적 헌신을 다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결혼기념일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많은 사람은 자신이 결혼을 언약보다는 훨씬 더 계약적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계약은 언약 결혼의 건강한 한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계약만으로는 언약적 결혼을 형성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의도하신 친밀성과 성취는 오직 우리가 언약적 결혼에 헌신할 때라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혼을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신적 기관으로 재확인해야 하며, 신성하며 영구한 언약으로서의 전통적, 성경적 결혼개념을 재확립해야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37) 예를 들면, 열왕기하 11장 17-20절을 보면, 아달라 이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바알의당을 훼파하고 우상을 깨뜨리며 바알의 제사장을 죽임으로써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였을 때에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여 민족이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인환 『기독교윤리 다이제스트』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2.
- 송영재, “언약신학과 조직신학,” <http://chaemoksa.com.ne.kr/writings/writings.htm>
- Anderson, J. Kerby *Moral Dilemmas*. Nashville: Word Publishing, 1998.
- Anderson, R. & Guernsey, D. *On Being Family: Essays on a social theology of the family*. Grand Rapids: Eerdmans, 1985.
- Atkinson, David. and Brown, David. 'The Future of the family' in *Stepping Stones*, Ed. Christina Baxter,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87.
- Chapman, Gary D. *Covenant Marriage*. Nashville: Brodaman & Holman Publishers, 2003.
- Fowers, *Beyond the Myth of Marital Happiness*.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 Gangel, Kenneth. “Toward a Biblical Theology of marriage and Famil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5:55-69, 150-62, 247-59, 318-31. 1977.
- Mattox, William. "Split Personality," *Policy Review*. Summer, 1995.
- McLean, Stuart. "The Language of Covenant and a Theology of the Family," *Consultation on a Theology of the Family*, Seminar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4.
-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Survey on Child health, USA*, 1988.
- Palmer, Paul E. "Christian Marriage: Contract or Covenant?" *Theological Studies*, 33, no. 4(December 1972):639
- Post, Stephen. *Sphere of Love: Toward a New Ethics of the Family*. Dallas: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Press. 1994.
- Pothan, Peter S. C. "Unpacking The family," *Grove Ethical Study*. Nottingham: Grove Books Limited, 1992.
- Robertson, O. Palmer. *The Christ of the Covenants*.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0.
- Stott, John. *Christian Basics*, 『존 스토티의 신앙생활 가이드』 김일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9.

Trull, Joe E. *Walking in the Wa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7.

Waite, Linda and Gallagher, Maggie. *The Case for Marriage*. New York: Doubleday Publishers, 2000.

Wallerstein, Judith. *The Good Marriage*. New York: Warner Books, 1995.

Zinsmeister, Karl. "Raising Hiroko." *American Enterprise*. March/April, 1990.

K C I